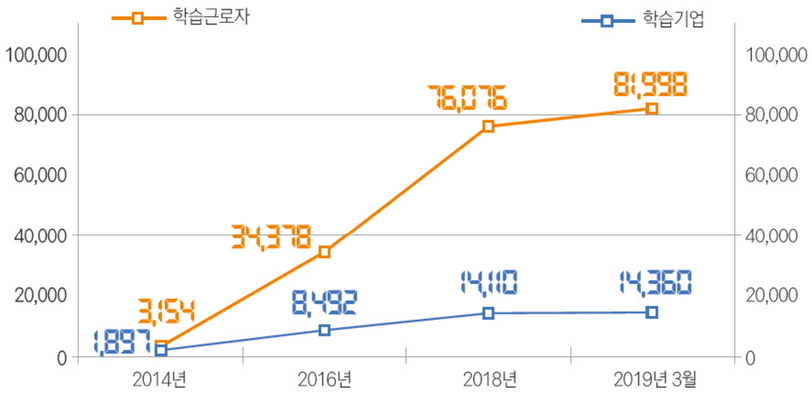
일터에서 배우는
'현장 기반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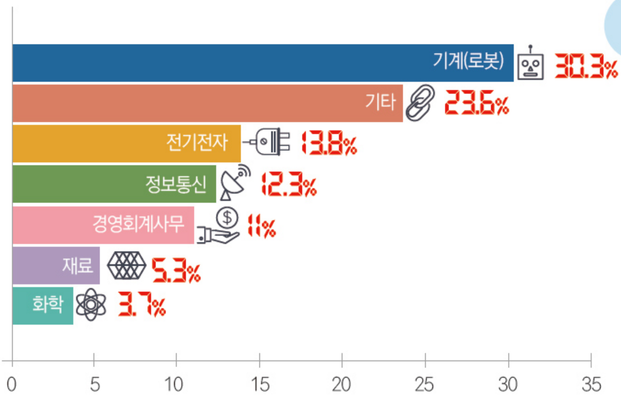
일학습병행

독일, 스위스에서 시작된 일학습병행은 한국 실정에 맞게 설계해 2014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19년 3월 기준 8만 1,998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했다. 초기 일학습병행 훈련 직종은 기계, 정보통신 부문이 과반을 차지했으나, 경영회계, 보건의료, 식품가공, 영업판매 등 다양한 부문에서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참여 현황(누적)



일학습병행 산업별 참여 비중





일학습병행의 강점

기업대표
(주)퓨전디자인

학습근로자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체계적 현장훈련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일학습병행이 기업의 인재를 양성해내는 새로운 기반으로 자리잡게 되었어요.

학습근로자
(주)에스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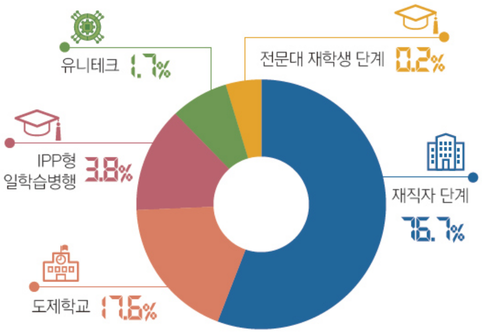
일학습병행 훈련을 통해 가공을 직접하면서 기계의 조작법을 배우는데, 마치 살아있는 지식을 배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기업현장교사
(주)원앤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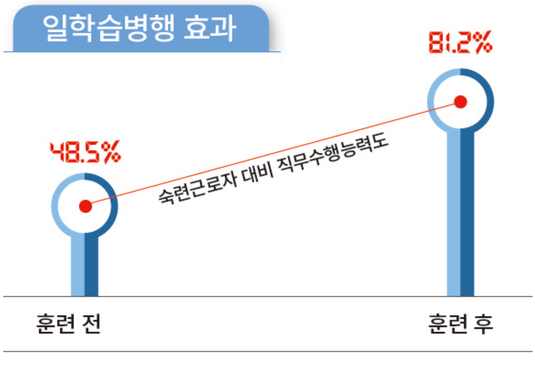
학습근로자가 2~3년 후에는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 노력이 있다면, 일학습병행은 중소기업에서 꼭 필요한 제도가 될 수 있어요.

"일학습병행을 통해 인력양성 체계를 만들어 학습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이 좋아졌습니다!"

참여 유형



일학습병행 효과



출처 : 2018 일학습병행 성과관리 연구사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